

##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37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시련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죽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때에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지난달 18 일부터 교회와 생활을 위해 아파트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애써 찾아헤매도 빌릴 수 있는 교회와 아파트는 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크게 낙심하여 고개를 떨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토지구입이 가능하도록 하시고 교회와 아파트를 건축하도록 빠르게 진행시키셨습니다. 교회와 주거를 후쿠시마현으로 옮기기로 정한 것이 불과 2 개월전이었습니다. 오쿠타마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정해도 교회만큼은 후쿠시마현으로 되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후 지난달 18 일부터 실제 현지에 도착하여 약 2 주일 동안에 토지구입과 새교회 건축과 함께 아파트까지 세우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약속의 땅을 정찰하기 위해서 선견대로 파견되었습니다만 우리들도 개척을 위한 선견대 역할을 한 것 같았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어쨌든 후쿠시마에 들어가 부딪혀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기대는 곧 산산조각으로 무너져버렸습니다. 월세 건물로 나온 것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듣고 있었습니다만 현실은 예상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로 빌릴 수 있는 건물을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를 먼저 정하지 않고서는 교회 가까운 곳으로 주거를 생각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아파트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손 발이 묶인 채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물 건물로 나온 빠짱코 등의 중고 건물도 몇 채 보았지만 그 어느 것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과감하게 토지를 구입해 새 교회를 세울 수 밖에 없다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들어와서 설마 다시 교회를 건축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각자의 책임이라 하여 다시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게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교회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세우도록 인도해 주시리라고는,,,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온 이상 전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나 갑작스럽게 전개되는 이 상황에 제 자신도 놀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출입 금지 구역으로 되어있는 우리들의 고향 바로 앞까지 복상한 이곳에 머무르며 다시 돌아갈 그 때를 바라며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건축할 교회의 테마는 「기도와 부활」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고향의 부흥을 바라며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들을 여기 이 곳까지 어린 아이가 부모의 뒤를 따르듯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되어 온 것이지요?

요새 연속드라마의 완성편이 준비됐습니다. 드라마 거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려 했던 토지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아파트 건축 대지가 결정되기 전 후로 해서 집 한 채도 구할 수 없었던 것이 각 성도님 가족의 주거가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부동산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우리들이 집을 찾는 의뢰가 들어온 직후부터 마치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처럼 빈 집의 부동산 정보가 잇달아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이 1~2 주간 안에만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의 예기를 듣기 전까지는 보통 우연히 있는 일로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많은 분들의 기도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나이든 종이 주인의 소중한 아들의 신부를 찾아 여행을 떠났습니다. 출발할 때는 도무지 짐작도 가지 않았지만 서서히 범위를 좁혀 한 지방의 한 소녀로 한정된 후에 신중하고 대담하게 정말로 이 소녀인지를 하나님께 물어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해 가던 프로세스를 떠올렸습니다. 우리들도 약 2 주일이라는 단기간에 장소 결정에서부터 토지 구입과 그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건축하게 됨과 동시에 성도님들의 주거까지 교회 근처로 확보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 앞에 서서 처음부터 준비하고 계셨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즘 몇 번이나 역시 불가능한 것이라고 낙심하곤 했었습니다. 특히 토지에 관해서는 모두가 원하던 그 땅은 결국 불가능할 거라고 거의 포기하고 있었을 때 매주로부터 팔겠다는 좋은 소식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치 시험의 합격 발표를 두근거리며 기다리던 학생처럼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심장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좀 미리 알 수 있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부터 누가 봐도 아 그 땅은 구입가능하다고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만 역시 안 됩니까?

처음부터 다 알아버리면 감격이, 무엇 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체험도 없겠지요. 내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제부터는 자금 조달과 여러가지 건축등의 관한 서류 절차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부디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마치 황야에 길을 연달아 개척하여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앞으로도 계속 붙들고 매달리겠습니다. 「예전에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들도 예전과 같은 수많은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압도된 적도 많았습니다. 이렇거나 가슴 설레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 하나를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드립니다. 」

9월 10일 구마모토(熊本)~사가(佐賀)에서

사토아키라(佐藤 彰)